마음 방향, AI 기술의 업보를 가르다

붓다, AI 윤리에 답하다

⑧ 팔란티어 AI, 수정구를 들여다보는 두 개의 시선

세상을 꿰뚫어 보는 돌, 전장을 꿰뚫는 눈

'팔란티어(Palantír)'는 영화 '반지의 제왕'에 등장하는 먼 곳을 꿰뚫어 보는 마법의 수정구였다. 그 수정구는 단순한 관찰의 도구가 아니라, 권력과 욕망이 개입될 때 현실 자체를 재구성하는 위험한 매개체이기도 했다. 이 신비로운 돌에는 함정이 있었다. 들여다보는 자의 의도에 따라 진실을 비추기도 했지만, 어둠의 군주 사우론은 같은 돌을 통해 상대방의 마음에 공포와 왜곡된 환상을 심어 넣었다. 결국 팔란티어는 보는 자의 지혜를 넓히는 창이 아니라, 보는 자의 영혼을 잠식하는 기만의 도구가 되기도 했다.

그 이름을 그대로 가져온 실리콘밸리의 데이터 기업 '팔란티어 테크놀로지스'가 이제 현실 세계에서 가장 논쟁적인 AI 기업으로 떠오르고 있다. 2026년 3월, 미 국방부는 팔란티어의 AI '메이븐 스마트 시스템(Maven Smart System)'을 실험 단계에서 정식 군사 프로그램으로 격상시켰다. 수 시간이 걸리던 표적 식별에서 결심·타격까지의 과정, 이른바 킬체인을 단 몇 분으로 압축하는 이 시스템은 이미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실전 성능을 입증한 바 있다.

그런데 바로 그 시점에 균열이 생겼다. 팔란티어의 '메이븐 스마트 시스템'이 핵심 AI 엔진으로 사용해 온 앤트로픽(Anthropic)의 클로드(Claude) 모델이 문제의 중심에 선 것이다. 기술의 평화적 이용과 안전성을 우선시하는 앤트로픽의 윤리 정책이 '자율 무기화'를 추진하는 미 정부의 군사 전략과 정면으로 충돌했기 때문이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정부와 앤트로픽의 협력을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팔란티어는 졸지에 자사 군사 플랫폼의 핵심 두뇌를 통째로 교체해야 하는 혼란에 빠졌다. AI 안전을 주장하는 기업과 AI를 전쟁의 도구로 확장하려는 국가 사이에서, 중립이라는 편리한 가면을 쓸 수 없게 됐다.

이 사건은 AI 기술이 결코 무색무취한 도구가 될 수 없음을 잘 보여준다. AI 안전을 고수하려는 기업과 이를 전쟁의 병기로 확장하려는 국가 사이에서, 기술은 더 이상 '중립'이라는 편리한 가면 뒤로 숨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실리콘밸리 내부에서조차 "우리는 단순한 코딩이 아니라, 누군가의 생사를 가르는 알고리즘을 설계하고 있다"라는 자성이 나오는 이유다.

이제 질문은 기술의 성능이 아니라 그 '의도'를 향해야 한다. AI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보다, 그 가능성을 누구의 손에 쥐여줄 것이며 그로 인해 발생하는 연기적(緣起的) 책임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라는 근원적 물음이다. 현대판 팔란티어라는 수정구를 통해 전장의 적은 낱낱이 꿰뚫어 보게 됐지만, 정작 그 도구를 든 자기 손목에 감긴 업(業)의 쇠사슬은 보지 못하는 비극. 우리는 지금 그 위험한 눈부심의 시대에 살고 있다.

전장의 칼에서 병원의 약방문으로

그런데 같은 팔란티어가 전혀 다른 얼굴을 보여주는 곳이 있다. 미국 탬파 종합병원은 2024년부터 팔란티어의 AI 플랫폼을 도입해 환자 병상 배치, 간호 인력 배정, 퇴원 관리까지 전 과정을 자동화하고 있다. 전장에서 적의 움직임을 감지하던 위협 예측 알고리즘이, 병원에서는 패혈증 조기 징후를 포착하고 실시간 알람을 울리며 의사에게 즉시 연결하는 생명 구호 시스템으로 탈바꿈한 것이다.

> **AI 기술 성능 아닌 '의도' 살펴야 할 시대**
> **팔란티어 AI, 킬체인→의료 시스템 활용**
> **연기법 통해 기술 겨누는 현실 직시해야**
> **분별심 위 세운 기술, 고통 총량 못 줄여**
> **공존하는 극단 뛰어넘는 중도 되새겨야**

포브스에 따르면, 팔란티어는 영국 국민보건서비스(NHS)를 비롯해 미국 주요 의료 시스템에 빠르게 침투하며, 전 세계 의료 데이터의 97%가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뒤집겠다는 야심을 드러냈다. 수 시간이 걸리던 킬체인을 몇 분으로 줄이던 그 파괴적 기술이, 환자 대기 시간과 재원 기간을 극적으로 단축하는 데 쓰이고 있는 셈이다.

같은 플랫폼 철학, 같은 데이터 처리 구조가 한쪽에서는 폭탄의 목표물을 지정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환자의 생명을 연장하는 데 쓰인다. 구체적인 알고리즘은 다르지만, 세계를 데이터로 환원하고 그로부터 결정을 가속하는 근본 설계는 동일하다. 기술의 뼈대는 하나인데, 그것이 향하는 방향에 따라 칼이 되기도 하고 약이 되기도 한다. 이 대목에서 어떤 질문이 떠오르지 않을 수 없다. 기술 자체에 선악이 없다면, 그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무엇인가.



팔란티어의 알고리즘이 병원 앞에 놓이는가, 전장 앞에 놓이는가를 결정하는 것은 기술 자체가 아니라, 그 기술을 발동시키는 의도의 방향이다. 그 의도가 살생과 착취를 향한다면 불선업(不善業)이요, 고통의 완화와 생명의 보호를 향한다면 비로소 정업(正業)의 조건이 갖추어진다. 팔란티어라는 수정구는 이미 우리 앞에 놓여 있다. 문제는 그 구슬이 무엇을 비추느냐가 아니라, 구슬을 들여다보는 우리가 무엇을 보려 하느냐에 있다.
AI Grok 생성 이미지

연기의 칼날 위에서

불교의 연기(緣起) 관점에서 보면, 어떤 존재도 홀로 일어나지 않는다. 팔란티어의 AI는 독립된 도구가 아니다. 그것을 설계한 엔지니어의 의도, 훈련에 사용된 군사 데이터, 계약을 승인한 관료의 판단, 전쟁을 결정한 정치 지도자의 선택, 그리고 그 기술에 투자하며 주가 상승을 기대한 수많은 투자자의 욕망까지, 이 모든 조건이 얽혀서 하나의 결과를 만들어낸다.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는 팔란티어의 논리는 연기적 세계관에서 보면 하나의 조건만을 떼어내 거기에 모든 무게를 실으려는 시도에 지나지 않는다.

〈중아함경(中阿含經)〉 '전유경(箭喩經)'에는 붓다가 독화살의 비유를 통해 가르침을 펼치는 대목이 있다. 독화살에 맞은 사람에게 급한 것은 화살을 뽑는 일이지, 누가 쏘았는지, 어떤 나무로 만들었는지를 따지는 일이 아니다.

그러나 이 비유는 흔히 "형이상학적 논쟁을 멈추라"는 뜻으로만 읽히지만, 오늘의 맥락에서는 다르게 읽힐 수 있다. AI라는 화살이 이미 세계 곳곳에 꽂혀 있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화살을 뽑는 일, 곧 기술이 실제로 누구에게 어떤 고통을 주고 있는지를 직시하는 일이다.

팔란티어의 메이븐 시스템이 2026년 2월 이후 이란에 대한 미군 작전에서 표적 선정에 활용됐다는 보도는 그 화살이 이미 누군가의 몸에 박혀 있음을 알려준다. 동시에 탬파 병원에서 패혈증 환자의 생명을 구하고 있다는 사실은 같은 기술이 화살을 뽑는 손이 될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 불교에서 말하는 업(業)은 단순한 인과응보가 아니라, 의도(cetanā)를 수반한 행위의 연쇄다. 기술을 만드는 행위, 배치하는 행위, 사용하는 행위, 묵인하는 행위 모두가 업의 흐름 안에 있다. 우리 편과 저쪽을 가르는 분별심 위에 세워진 기술은 아무리 정교하더라도 고통의 총량을 줄이지 못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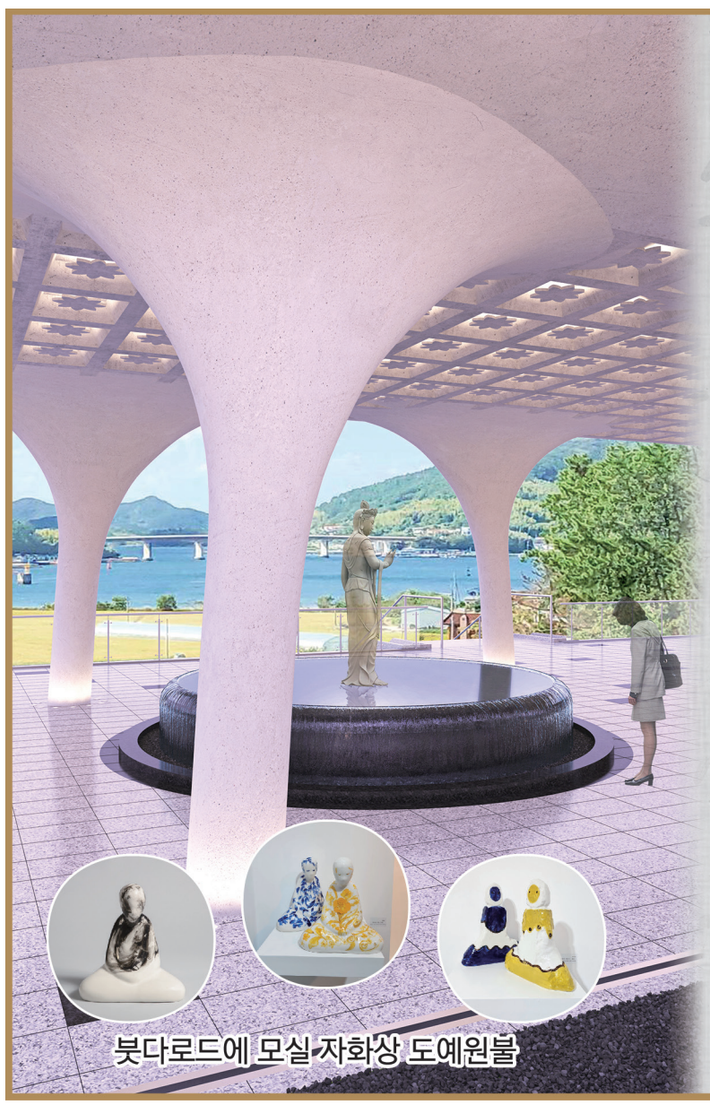
그렇다면 AI 기술에 중도(中道)란 있을 수 있는가. 붓다가 말한 중도는 쾌락과 고행 사이의 단순한 절충이 아니라, 양극단에 매이지 않는 깨어 있는 실천이었다. 오늘날 AI를 둘러싼 담론은 두 극단 사이를 오간다. 한쪽에서는 "AI는 인류를 멸망시킬 것"이라는 종말론이, 다른 한쪽에서는 "AI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기술 만능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팔란티어 사태는 이 두 극단이 하나의 기업, 하나의 플랫폼 안에 동시에 존재할 수 있음을 잘 보여준다. 팔란티어의 AI 시스템은 전장에서 생명을 빼앗는 칼이면서, 병원에서 생명을 살리는 약이다. 스위스군은 2024년 12월 데이터 주권 상실, 미국 정보기관에 의한 기밀 유출 가능성, 외국 기업에 대한 장기 종속 위험을 지적하며 팔란티어 도입을 거부했다. 반면 영국은 2023년 말, 국민보건서비스(NHS) 연합 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위해 팔란티어와 계약을 체결했다. 같은 기술, 정반대의 결론이다. 이것은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기술을 대하는 국가의 의도와 분별력의 문제다. 팔란티어의 알고리즘이 병원 앞에 놓이는가, 전장 앞에 놓이는가를 결정하는 것은 기술 자체가 아니라, 그 기술을 발동시키는 의도의 방향이다. 그 의도가 살생과 착취를 향한다면 불선업(不善業)이요, 고통의 완화와 생명의 보호를 향한다면 비로소 정업(正業)의 조건이 갖추어진다.

팔란티어라는 수정구는 이미 우리 앞에 놓여 있다. 문제는 그 구슬이 무엇을 비추느냐가 아니라, 구슬을 들여다보는 우리가 무엇을 보려 하느냐에 있다. 전장의 표적을 찾으려는 눈으로 볼 것인가, 병상의 환자를 살피려는 눈으로 볼 것인가. AI라는 거울 앞에서, 지금 우리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보일 스님
AI부디즘연구소장



거북이가 알을 낳고 봉황이 내려앉는 명당

자손대대로 공덕이 이어지는 창건불사에 동참하십시오

거북이 같은 장수와 부귀영화를 누리고
천상에 태어나는 큰 공덕이 됩니다.

한려수도의 심장 거제도 제석산이 감싸고 천연와불이 수호하는
대붕안착형·영구은란형 터로 세계적인 불교 성지가 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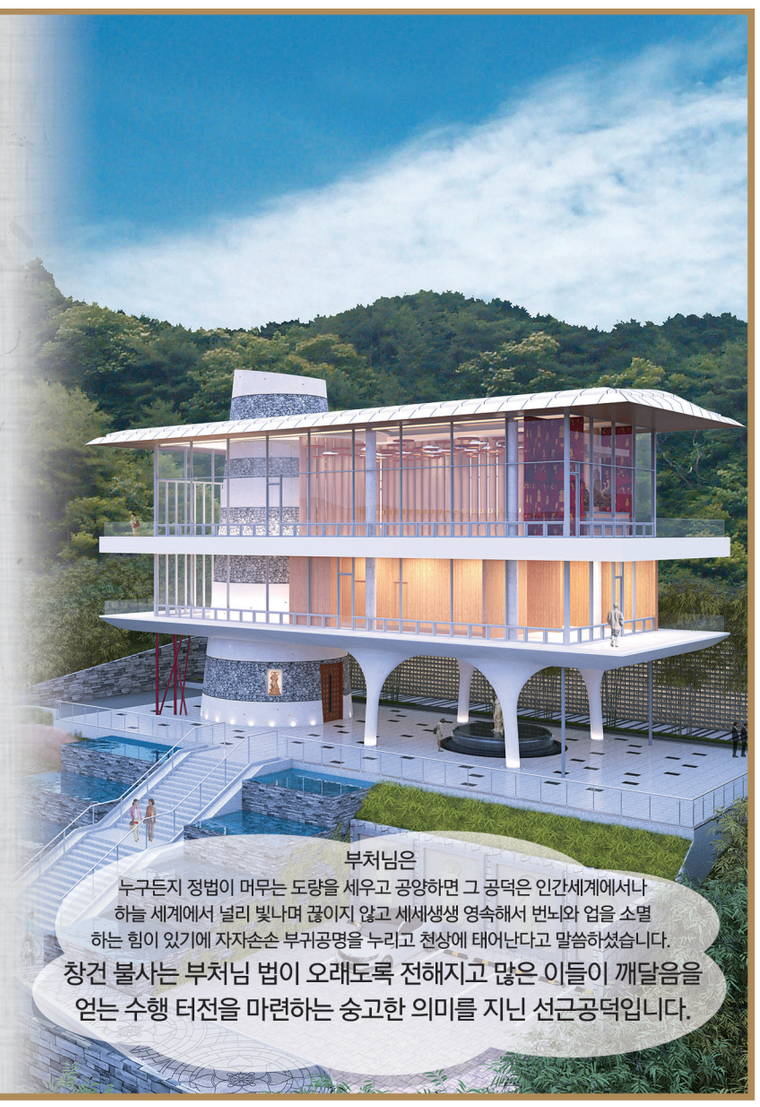
동참방법

원불 108만원, 관음보살상1080만원으로 불자님의 원력과 사정에 따라 자유롭게 분할 또는 일시금으로 납입 하시면 됩니다. (원불:삼천불, 관음보살상:33불)
계좌 : 부산은행 101-2083-6727-07 문의 : 010-5514-1002 오오! 일사천리

불사개요

대한불교조계종 삼보문화회 이사장 겸 부산불교교육대학 학장(영산대학교 겸임교수)인 평천 범혜스님이 세계적인 불교 성지 탄생을 위해 여러 불자님의 원력을 모아 창건하는 신개념 사찰입니다.
세계적 건축 명장의 초현대적 감성과 불교 사상·우주관을 융합하여 남섬부주에서 9산8해의 중심 수미산 정상에서 설법하는 부처님을 찾아가는 여정을 담았습니다. 또한, 33수행계단을 오르며 번뇌 망상을 비우고 또 비워서 비로소 참나를 찾아 도자기 원불에 자신만의 자화상이나 원력을 그려 넣어 도예작품으로 완성하여 붓다로드에 모십니다.
부처님의 상징인 흰코끼리 건축물, 수미산 형상의 코끼리 코기둥, 제석천 위 허공에 모신 실물 불상, 바다 위 허공에 모신 실물 33관음보살상, 종이 소재의 법당기둥, 구품연지, 금강저 등 새로운 패러다임의 사찰건축 작품입니다.

더뷰비전센터 평천 범혜 합장
(경남 거제시 장목면 장목리 525-3)



부처님은
누구든지 정법이 머무는 도량을 세우고 공양하면 그 공덕은 인간세계에서나
하늘 세계에서 널리 빛나며 끊이지 않고 세세생생 영속해서 번뇌와 업을 소멸
하는 힘이 있기에 자자손손 부귀공명을 누리고 천상에 태어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창건 불사는 부처님 법이 오래도록 전해지고 많은 이들이 깨달음을 얻는 수행 터전을 마련하는 숭고한 의미를 지닌 선근공덕입니다.